

6. 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	1980년대 민주화운동 7차년도 - 민주화운동 주요인사 구술채록				
구술자명	강기갑	면담자	차성환		
검독자	이름 : 차성환				

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과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 - 아들들은 농고와 전문학교들을 나왔고 딸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여 누님들은 중학교를 못 감 - 625 당시 인민군들이 마을을 점령을 했을 때 자기 집이 가장 커서 인민군 중대본부 같은 것이 차려짐 - 어머니는 집을 인민군이 어지럽히거나 하면 군인들에게 할 말을 하는 울곤은 사람이었음 - 인민군이 후퇴하고 미군이 들어올 당시 누님들은 미군이 오면 겁탈당하지 않기 위해 얼굴에 솥을 바르고 머리를 풀어헤침 - 인민군이 후퇴할 때 끌고 간 사람들을 보급대라 하였으며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그 집안사람들을 사상범으로 추정하는 등의 일이 있었음		
2. 초등학교 시절		
- 1959년 3월 사동 국민학교에 입학함. - 맹랑하고 툭툭한 학생이었음. - 억울하게 물리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모두 이겼고 대장 노릇을 함. - 당시에는 라디오로만 소식을 들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난 위인으로 알고 있었음.	00:26:07 ~ 00:35:17	File 1
3. 중학교 시절		
- 사천중학교로 진학함. - 중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 마치고 대련을 하자는 대련자들이 줄을 서듯했으나 1학년 조금 지나니 정리가 됨. - 이후에는 진짜 깡패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생김. -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복싱도장에 가 김기수라는 사범을 만나 계속해서 대련을 해 집에서 몰래 키우던 닭의 계란을 먹기도 함. - 어떤 누님은 어머니가 잠들면 다락방에서 몰래 공부를 할 정도로 하다가 야간고등학교 후 연세대 치과대학에 진학 후 수녀가 되신 분도 계심. - 큰형님과 본인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길로 갔음. - 부모님은 정미소 사업 등으로 살림이 좀 괜찮아져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원했고 본인에게 상업고등학교 지망을 희망했으나 공부에 취미가 없어 사천농업고등학교 진학함.	00:37:18 ~ 00:48:12	File 1
4. 고등학교 졸업 후 낙농업 도전과 허리부상		
- 농고에서는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졸업함. - 가족들은 상업 쪽으로 가길 원했으나 산기슭에 있는 아버지 농토를 개발해 농사를 하겠다고 함. - 부모님의 최고 보물이었던 논 다섯 마지기를 팔고 산기슭 오만천 평을 사서 목장을 해 대성공을 함.	00:48:12 ~ 01:02:50	File 1

- 처음 젖소를 수입을 할 때 15마리 정도를 구입해 30두를 치고 우유 1톤 이상 내며 성공함. - 유행열이라는 병에 걸린 소를 관리하다가 오른쪽 허리를 다칩. - 허리를 고치기 위해 뜸술, 약수물, 요가 등 갖은 노력들을 하며 회복함. -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허리로 병역면제를 받음.		
5. 카톨릭 입교와 카톨릭농민회 입회 - 1971년 카톨릭에 입교함. - 지하로 추락하는 꿈을 계속 꿔고 수녀원 휴가 나온 누님이 주기도문을 외어 주며 누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성당에 나감. - 1977년 12월 한국카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창립에 함께함. - 크리스천 아카데미 출신들이 마을에 강연을 오고 쌀 생산비 조사 운동, 경지정리사건, 강제경작반대, 율령농지세 개선행, 함평 고구마사건 등이 일어나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함. - 쌀생산비조사 당시 울주에 큰 집회를 하기로 했으나 지역 공무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빠져나와 집회에 감. - 당시 친 자형이 농촌지도소에 근무했었고 직원들을 데리고 와 감금당함. -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 송아지 유행열 치료해주는 척하며 탈출해 걸어서 진주까지 간 후 차로 울산까지 감. - 카톨릭농민회 대회가 잡히면 관은 죽어라 막고 농민회는 수단,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.	01:02:51 ~ 01:15:08	File 1
6. 오원춘 사건 - 오원춘 씨는 농협에서 보급받은 씨감자로 농사를 지었으나 잘못된 보급으로 수확이 되지 않았고 보상이 없었음. - 경북 안동교구 사무국장인 정호경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정재돈, 이병철, 정재돈 등 크리스천 아카데미 출신들이 보상 요구를 하며 들고 일어남. - 행정부나 기관은 오원춘 사건을 저항으로 보고 탄압이 시작됨. - 오원춘 씨를 울릉도에 데리고 가 협박을 해 활동을 못하게 함. - 그게 농민회에 전달되며 전국적으로 씨감자 문제로 들고 일어서자 오원춘 씨가 구속됨. - 이후 정재돈, 정호경 신부까지 구속을 하자 전국에서 안동교구청에 소집령을 내렸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구술자를 집에서 막아섬. - 또 소에게 주사를 맞히러 간다며 탈출했으나 버스에서 잡히고 연행되어 읍장에게 잡혀갔으나 다시 밤에 탈출해 안	01:15:08 ~ 01:28:43	File 1

동교구청으로 감. - 당시 보름간 농성을 했는데 젓소 관리를 하지 못해 다른 가족들이 고생하며 난리가 남. - 경찰이 에워싼 교구청에서 7, 80명 농성을 하며 대치를 하고 전국 지도신부들이 서울 명동성당 지하에서 농성을 꾸렸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급습을 최후 통첩함. -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들에게 안동에서의 농성을 중단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구술자는 거부했으나 이는 순교자들이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닌 불씨를 유지해 전국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득하자 결국 동의하여 농성을 풀게 됨. - 당시 죽창도 준비하고 찢러라고 하면 찢렸을 정도로 단순하게 순교정신으로 임함.		
7. 박정희 서거와 이후 더 심해진 탄압 - 농성 후 집으로 돌아온 9월 타작 시기쯤 고모 제사날 아침밥을 먹는데 트랜지스터에서 박정희 서거 소식을 들음 - 그 소식에 만세를 부르자 이종 사촌형님이 정신차려라며 뺨을 때린 일이 있음. - 안동교구 농성 당시 공무원이 들어오면 감금하기로한 행동 지침이 있었는데 막상 공무원이 들어와 이병철 씨와 말싸움이 붙자 그 행동지침을 따른 것은 구술자 본인뿐이었고 먹살 잡고 공무원과 싸우게 됨. - 공무원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병철 씨가 설득시켜 공무원을 보냈음 - 구술자는 이와 같이 한번 결정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음. - 농성 이후 탄압이 너무 심해짐. - 농토 토지개량은 박정희의 업적으로 높게 평가하나 농성 이후 산림과를 통해 초지 조성 관련 트집을 잡아대 농장 운영이 어려워짐. - 결국 농민운동을 계속 하느냐 농장을 떠나냐의 선택에 기로에 놓임. - 82년 사천경찰서 사천지서가 마을 유지들에게 전화를 해 보습대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들먹이며 구술자와의 관계를 물으며 사상범을 몰아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게 함. - 그 시기 사천성당에서 수녀님을 통해 만난 수도사와 미팅을 하다 설득을 당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됨.	01:28:44 ~ 01:48:09	File 1
8. 긴급조치9호 위반 - 안동에서 농성 후 마산 사봉 순교자성지에서 오원춘사건과 농민의 처지와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을 하고 돌아옴. - 10월 추수 시기에 타작하러 모여있을 때 진주경찰서 정보	01:48:10 ~ 01:58:21	File 1

과에서 나와 순교자 대회 발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연행해 감. -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호텔에서 자고 부산에 있는 경남도경 보안과 지하에서 조사를 받음 - 조사 중에 임상협 신부의 친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형이 임상협 신부를 찾아와 다이ना마이트로 협박을 하며 구술자가 방면되기를 요구함. - 원고는 신부님이 쓰고 연설만 했다고 거짓 자백해 그날 풀려나고 그것이 인생 최초의 거짓말로 양심에 남는 일이 됨.		
9. 수도권 생활 후 농민운동 - 1981년 부평 계산동 계룡산 소재 가르멜 남자수도원에서 6년 가량의 수사생활 시작 - 1987년 명동성당에서 3김 단일화 집회를 할 때 수도원을 나옴. - 황태현 신부에게 프랑스 가르멜수도원으로 가기로 초대장까지 받았으나 사천에 내려와 농민회와 엮이며 활동을 하게 됨. - 6월항쟁 당시 마산교구 신부님들과 3·15의거탑에서 애국가를 부른 것으로 연행되어 구류를 살게되나 사천성당에서 집회를 열고 한겨레신문 보급을 해 농민, 시민 의식화 활동을 함 - 당시 목장은 형님과 서울에서 제일제당에 입사했던 조카를 데려와서 운영을 했고 수도권에서 복귀하여 형님을 도와 목장생활 함. -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농민 활동 관련 정보를 경남 담당이었던 김형택 기사를 통해 제공함. - 당시 한겨레는 신문수송연합회에 가입이 되지 않아 혼자서 신문 수송을 해야 했고 사정이 어려웠음 - 운동권들이 지국장을 맡았고 삼천포는 구술자가 맡게 됨. - 아침 신문 배달까지 직접하며 대형 교통사고를 겪으며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김. - 김천에서 열차로 온 신문을 싣고 거창, 진주, 사천, 삼천포, 남해 하동에 내려주고 아침 9시에 돌아와 목욕탕으로 가곤 했음 - 이후 수송을 용역 맡겼으나 사고가 나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 그 일에서 손을 뗀	00:00:01 ~ 00:18:05	File 2
10. 농촌총각결혼대책위원회 - 노태우 정권이 미국 농산물 수입개방을 선언하고 이에 반발하여 카톨릭농민회에서 소집령을 내리고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짐. - 당시 각 교구에서 2사람 이상 차출하여 수입 개방한 농산물을 대사관 앞에서 흩뿌리는 집회를 하고 20분이 안 되	00:18:05 ~ 00:37:42	File 2

어 전원 연행되었는데 정광훈을 제외한 전원 모두 총각이었음. - 당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 자살하는 문제가 있었고 농민문제의 구조적 결과로서 조직적 해결의 뜻을 다지자며 유치장에서 농촌총각결혼대책위를 만들기로 함 - 2년 정도 실행을 예상했으나 박계동, 이우재 등 평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자 사회문제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 밤 12시에 석방시킴. - 이후 대전교구 카톨릭 농민회에서 농촌총각 결혼대책위를 결성하고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서울의 전민련 사무실에 본부를 만들며 취직하게 됨. - 첫 쌍을 결혼시킬 때까지 수염을 안 깎겠다고 결심했으나 1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라고 수근거렸음. - 사무실을 함께 쓰던 전농회가 커지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오지 못해 대치동으로 이사하며 당시 국회의원들과 노무현 의원이 찾아오기도 함. - 전철에 결대위 스티커를 붙여 항의 전화가 오기도 하는 등 홍보에 노력해 MBC 방송을 타고 여성잡지 등에 게재가 되는 등 화제가 됨. - 이로 인해 결국 해외 수도원으로 가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함. - 당시 쏟아지는 문의 전화 중 여성들의 문의 전화 응대를 할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여성을 고용했고 현재의 부인임. - 91~2년경 결혼을 하며 약 2년 가량의 결대위 활동을 마치고 오덕훈에게 제2대 위원장을 맡김. - 결대위는 130여 쌍의 결혼을 성사시킴.		
11. 전국농민회총연맹결성과 김대중대통령과의 에피소드 - 카톨릭농민회, 기독교농민회, 전국농민협회 3단체를 묶어 1990년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. - 총 연맹 중 카톨릭농민회가 가장 컸고 구술자는 당시 카톨릭농민회 마산교구 경남회장, 총연맹에서는 도연맹의장, 전농의 부의장, 결대위 위원장, 농가부채대책위원장,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을 계속 함. - 초대 의장은 카톨릭농민회 총회장 권종대가 맡음. - 당시 농가부채문제나 협동조합문제 등 심각했음에도 조합의 실상은 사이비 조직과 같았고 개혁을 위해 집회 등을 함. - 김대중 대통령이 경남에 내려왔을 당시 쌀값 문제가 대두되어있었는데 대통령이 질문도 안 받고 나가길래 뒤에서 고함을 치며 따라 나감 - 경호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끌어내어지고 구술자는 책상을 치고 고함을 쳤으나 대통령은 그냥 가버림. - 이후 동아일보, 조선일보, 중앙일보 3개 중앙지 사설에 성	00:37:57 ~ 00:49:31	File 2

명서를 게재하자 다음 날 청와대 농업담당관 김주수가 대통령 '유감이다.'라는 답을 사천으로 가져와 처음에는 투쟁하기로 했으나 이후 시군 회장단 회의를 통해 받기로 함. - 몇 달 후 청와대 방문하여 마무리가 됨.		
12. 의료보험제도와 연대 집회 후 재판과 집행유예형 확정 - 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 농민들은 포함되지 않고 각 지역과 부분 단위로 되어있었음. - 지역조합주의로 가버리면 기득권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기에 전체통합보험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 의료투쟁위원장을 맡음. - 그를 위해 그간에 투쟁을 엄청했고 국회의원 2선을 한 황성균을 통해 노력했음. - 결혼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 의료보험통합이야기를 하며 뜻을 같이하고 이후 노 대통령이 지역통합으로 함. - 국민들간의 빈부와 직업 등의 차이가 있어도 의료 영역만 큰 전국민이 공동책임을 지는 내용을 주장함. - 김대중 정부시절 경남연맹의장으로 재임하며 한농연 박홍수와 경남도청 앞에서 수입개방반대와 FTA 연대집회를 하며 1시간 이상 대치를 함. - 더 큰 폭력시위로 번지지 않게 사람들의 열정이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청 앞의 아치형 탑에 불을 질러 태움. - 그로 인해 집행유예형을 받고 이후 항소를 못 해 형이 확정됨.	00:49:32 ~ 01:00:41	File 2
13. 2004년 17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- 민주노동당 창당이 되었고 농민비례 후보가 없어 요청이 들어왔으나 젓소 관리는 하루라도 착유를 하지 않으면 농장이 망하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핑계로 거절함. -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앞선 집행유예 사면을 받아 복권이 되었고 후보가 된다고 다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비례 등록을 함. - 아내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내아이 젓을 먹이는 와중에 단식을 하기도 했으나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설득함. - 이전에 결대위 창립대회 때 국회의원들 몇을 초청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참석했고 그때부터 인연을 가지며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민주당으로 출마하라고 권하기도 함. - 노 대통령과 인연은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단식을 많이 했고 중학교 친구였던 당시 비서관 황인성이 찾아와 달래기도 했으나 사적인 연이 아닌 농업문제에 대한 것에서는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음.	01:00:42 ~ 01:29:40	File 2

- 아내는 비례등록을 극구 반대했으나 장인어른까지 농장을 돕겠다고 일본에서 들어와 아내의 반대가 일단락 됨. - 국회의원 월급은 1천만 원 정도 되었고 당에 모두 주고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는데 비해 농장은 실질적인 타격이 컸음. - 중간 중간 뇌물같은 돈을 건내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야단을 치며 거절하거나 정 안되는 경우 농민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권유함. - 국회의원 2년 차에 농장운영은 한계에 부딪혀 쪼트를 다 처분하고 지금까지도 2억의 빚을 지고 있음.		
14. 국회의원 시절과 경선 당선 - 의원 시절 수염, 두루마기로 대표되는 차림으로 활동을 한 이유에는 옷으로 인해 거동이나 행동거지가 정단해질 뿐 아니라 우리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음. - 서구화가 너무 많이 되었고 우리 조상들의 의복이나 식품의 좋은 점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 고집하고 있음. - 원내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8년 동안 했고 단식투쟁을 많이 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함. - 2005년 11월 농민집회를 하다 두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때 기록상 29일간 최장 단식을 했음. -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을 하며 분당을 하게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었고 4월 사천에서 당선함. - 18대 총선 역시 당선 확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내를 설득해 출마했고 이미 직전에 FTA 반대 단식을 한 이후로 구슬자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오히려 열심히 함. - 당선된 후 당 대표를 하게 되었고 이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강성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정희를 대표로 추대함.	01:32:44 ~ 01:57:21	File 2
15. 4대강 정비사업 - 2대 국회의정활동을 하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국토해양위 상임위로 갔음. - 지방의원들 경우 당시 없던 길을 내는 것이 숙원 사업으로 꼽혔기 때문에 국토해양위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음. - 굶이치는 하천을 직선으로 바꾸면 유속이 빨라져 훼손이 많이 되고 비가 오면 수해를 유발시킬 요인들이 있는 등 문제가 많음. - 노무현 정권 때는 민주당을 상대로 투쟁을 많이 했지만 국토위에서는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을 저지했음. - 진양호 댐 수위를 높여 사천만으로 흘러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의원과 손을 잡	00:00:00 ~ 00:06:35	File 3

고 그 계획을 무산 시킨 것을 큰 성과로 삼고 싶음.		
16.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죽음		
- 2009년 5월 용남중학교에 큰 행사를 축하하러 올라갔다가 보좌관을 통해 노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음. -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 노 전대통령의 이전 낙선 경험 때도 위로를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했었음. - 또 경남도연맹 의장 시절 집행유예를 사면하고 의정활동에서도 연고가 있었기에 사망 소식이 매우 애석했음. - 이외에도 농촌총각결혼대책위 시절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후원을 해주고 결성식에 참여해 축하까지 해줬음. - 한미 FTA로 침해하게 대립하긴 하였으나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많이 한,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었음.	00:06:35 ~ 00:12:11	File 3
17. 이명박 정권과 통합진보당 창당		
- 이명박 정권 때 MB악법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, 농업, 민생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졌었음. - 4대강 정비사업보다도 언론법을 바꾸어 법안을 날치기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에 반발하여 국회에서 공중분양하고 난리치며 반대를 함. - 당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배신 정당같이 느껴졌고 한나라당은 주적 정당처럼 대상이 됨. -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당대표를 맡지 않았고 한미 FTA를 하고 있었는데 심상정이 인사하러 찾아왔음. - 진보신당 분당 등을 모르던 구술자는 안타까워서 손을 잡고 간곡히 만류하기도 함. - 다시 2011년 초부터 대통합을 논의해 12월에 통합진보당을 창당해 재통합했고 당시 대표직을 많이 제안받았지만 이정희를 추대를 했었고 이때부터 파열음이 나며 분열이 되었음.	00:12:12 ~ 00:21:02	File 3
18. 당 분열과 정계은퇴		
- 2012년 4월 총선거에서 남해, 하동, 사천 지역구가 통합이 되어 3파전으로 가 박빙을 겨루다 패배함. - 통합진보당은 13석이나 확보를 해 기대가 컸음. - 총선 이후 비례대표 경선을 계기로 분열, NL다수파가 남고 NL소수파와 PD파가 분당을 해 정의당으로 창당을 해 나감. - 총선 패배 후 고추농사를 지내던 중 당의 비상소집에 아내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쌈. - 당 분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습을 시도했으나 잘 안 됨. - 당 대표를 제안받았을때 극구 거절하며 이정희 대표를 추대했으나 당이 분열된 상황으로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	00:21:03 ~ 00:37:14	File 3

노력했으나 수습이 어려워 탈당을 하고 내려옴. - 비상대책위원회는 권태홍이라는 사무총장과 민병열을 집행위원장으로 발탁해서 양측을 통합하려고 함. - 단식까지 하며 두 진영을 끌어모으려 했으나 경선과정에서 잡음들이 터져나오며 서로를 흠집내기 시작함 - 대의원대회 때의 싸움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던 때로 이 책임자인 이석기와 김제연에게 책임을 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만 참적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함. - 설득을 위해 물까지 끓는 단식을 했다가 1주일만에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 설득을 포기함. - 몸이 완전히 무너져 신장이 다 망가져버려 강원도에서 3개월간 요양을 하고 그길로 정계를 완전히 떠남.		
19. 마지막 단식과 결과 -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정의당을 창당한 권태홍, 이유미, 이정미가 와서 당에 가입할 것을 부탁했으나 간곡하게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임을 호소함. - 비대위가 실패했는데 정의당에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몸도 망가졌으며 가정도 엉망이 되어 빚이 2억원이 있는 상황이었음. - 다만 창당 때 가서 축사는 해줌. - 온화한 서민정당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여성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이정희 대표를 추대했었으나 정의당 세력의 창당과 분열이 일어나자 이 대한 원망을 들음. - 비례대표 경선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석기, 김제연에게 의원사퇴는 하지말고 의원실만 빼고 대통령 선거 이슈로 잠잠해지길 기다리고자 제안하고 답을 달라고 하며 물도 안 마시는 단식에 들어감 - 1주일 후 교섭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해 거절의 답변이 음. - 단식 6일 차에 혼수상태에 빠져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갔고 일반적인 단식 응급환자들보다도 혈당이 심각하게 떨어진 비상사태였음.	00:37:14 ~ 00:46:02	File 3
20. 진보의 분열에 대한 고찰 -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는 하나의 계기일 뿐 그 전부터 평등파와 자주파 간의 갈등 있었음. - 분열의 원인을 당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패권적인 욕심에 있다고 봄 - 진보주의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기지는 않지만 자기의 계파가 중심을 잡아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리에 기인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생각을 함. - 보수는 분열을 잘 안 하고 진보는 계속 자기가 주장한 바	00:46:02 ~ 00:57:27	File 3

를 관찰시켜 나가기 때문에 분열이 그림자처럼 따라옴. - 조승수, 노회찬, 권영길, 천영세 등과도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잘 지냈음 - 이정희를 대표로 세워놓는 순간 이석기, 김제연, 김선동이 대의원 대회 때 먹살을 잡는 등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때 봉합을 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패권성이 너무 컸다고 생각함. - 결국 사퇴하고 내려오자마자 국민참여당 5천여 명이 탈당을 함. - 긴급하게 유시민, 권태홍이 탈당을 막기 위해 구술자가 어떻게든 수습을 한다고 탈당을 기다려라고 당원들을 설득했고 심상정 대표가 머리를 깎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중단됨.		
21. 이석기내란음모사건 - 박근혜 정권시절 이석기가 당원을 모으기 위해 당원 교육장에서 강성 발언을 한 것이 과잉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이 터짐. - 어떤 맥락에서 그런 강성발언을 했는지 이해는 가나 너무 어리 석었다고 생각함. - 2013년 위헌정당심판으로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 후 진보당으로 다시 활동을 하는 중임.	00:57:28 ~ 01:05:08	File 3
22. 탈당 후의 생활 - 탈당 후 강원도에서 도인처럼 사는 사람과 함께 기거하며 요양을 함. - 쭉을 태운 연기를 호스로 넣는 쭉욕 등 신기한 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신장을 회복함. - 3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도 8~9개월간 죽이나 미음만 먹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며 1년간 회복기간을 가짐. - 장독에 담겨 놓은 10년 정도 발효된 식초 같은 것을 먹으니 회복에 너무 도움이 되었음. - 카이스트 대학 내 EM생명과학연구원 서범구의 강의를 듣고 감탄해 독대를 함. - 집에서 만든 식초가 귀하다는 평을 받으며 특허를 내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 할 수 없었고 그 분이 분리를 해서 3K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를 함.	01:05:09 ~ 01:16:22	File 3
23. 한국 농업의 위기 - 농업 문제는 입체적이며 복합적이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음. - 가장 심각한 문제는 5천년 발효 종주국임에도 발효영역이 다 무너짐. - 수입 식자재와 식품은 대부분 인스턴트 가공식품으로 장내 미생물에게 좋지 않음.	01:16:23 ~ 01:28:42	File 3

- 땅에 치는 제초제, GMO 등 문제가 많으나 이제는 국민들이 무감각해져버려서 GMO인 수입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없고 의존도가 높음. -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봄. - 제초제 주성분이 다이옥신으로 청산가리의 5천배에 달하는 독성으로 땅속의 미생물을 다 죽임. - 토지문제의 경우 농부의 수가 너무 적어 소작농을 인정해주는 형태까지 와 경작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. - 농민들은 곡류보다 채소 같은 로컬푸드 농협에서 더 돈을 벌. - 수도작은 기계값 등 타산이 맞지 않아 농촌이 무너지고 있음. - 현 윤석열 정권은 농업에 대한 철학이 없어 굉장히 절망감을 느낌.		
24.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- 의복이나 실생활, 문화, 교육 등 품성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가버리는 점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이 문제라고 생각함. - 병원이 문 닫으면 세상이 멈추는 것이 되었는데 이는 식탁이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함. - 땅의 산소 포집력이 줄고 기후위기가 온 것 역시 식단과 관련이 있음. - 유럽, 미국의 초대형 농사는 작물을 수확할 때 탄소배출이 어마어마해 땅의 산소포집력을 낮추고 기후가 변화하며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함. - 농업이 이렇게 국민의 식성과 기후변화까지도 영향을 줌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학자가 없음. - 현재 한국 마이크로바이옴협회를 만들어 한우, 양돈, 토종닭, 오리, 한살림 소비자, 곤충 등 열 몇개 단체를 모아 활동 중임. - 농림부에 미생물 농업활성화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으나 윤석열 정권 이후 가동이 되지 않음. - 이와 관련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음. - 정치권의 진영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이 당선되려는 노력의 1/100만 투자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.	01:28:43 ~ 01:38:48	File 3
25. 마무리 - 민주화에 그동안 일어났던 활동이나 역사에 대해서 재평가나 조명을 다시 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술 활동을 펼친다는 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임. - 농민 분야에서 제일 소외된 것이 의료보험이었고 통합적으로까지는 달성했지만 이런 부분을 민주화 진영에서 재평가 함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.	01:38:48 ~ 01:41:32	File 3